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6년 12월부터 이곳에서 거주중이며, 피신청인이 2017.5월경 이사온 후부터 극심한 소음피해가 발생됨
- 청소기 소음은 어쩔 수 없지만 매일같이 가구를 끄는 소리 밤 12시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 아이의 발 구르고 공 굴리는 소리, 뛰는 소리 등 피해가 있음
- 피신청인(남자)이 새벽1시, 주말엔 3~4시까지 쿵쿵 걸으며 현관문, 중문 쾅 닫는 소리 등 발생함
- 피신청인(여자)는 새벽시간대 뭇가 옮기고 쿵쿵거리고 걸으며, 가구를 옮기는 소리, 낙하음, 두들기는 소리를 발생함
- 경비실을 통해 소음자제를 권유하거나, 저희 집에서 천정에 막대기로 두들기는 행동하면 바로 보복소음으로 이어짐
- 2019.1.11.일과 15일 새벽 두 차례 보복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또한 중학생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도 여러차례임
- 셀 수 없는 소음과 난동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숙면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수면시간도 갖지 못함
- 피신청인은 소음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으며, 경찰이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거짓과 변명으로 기망하고 신청인에게 사과나 반성의 조치 및 행동이 없어 분노를 가지게 됨
-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처방도 받고 귀트임도 생겨 예민해지고 소음으로 시달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짜증으로 우울증과 불안감도 심해져 몸 상태가 악화됨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가족은 2005년부터 동 아파트에 이사를 오기 전까지 다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당한 적이 없음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은 바로 윗집 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으며, 층간 소음 기준은 주야간 일정 소음수치의 기준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해 가능한 예의 시간대들이 있을 것이나 신청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가 지우개를 떨어뜨리는 작은 소음에도 문제를 삼고 보복소음으로 저희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오히려 피신청인 가족이 어디에 호소도 못하고 2년을 지내왔음
- 주말 및 방학을 제외하고는 오후4시까지 피신청인 아내외엔 집안에 있는 가족이 거의 없으며, 특히 신청인의 윗방에 있는 아이는 학원 관계로 오후11시경 귀가해 사용시간이 1~2시간 내외임
- 지난 2년간 신청인을 지켜본 결과, 신청인은 특별한 직업없이 거의 온종일 신청인 세대에 상주하는 등 보통의 세대와는 다른 패턴을 가짐
- 신청인은 피신청인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단발성 소음에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보복소음을 보내고 있음. 또한 피신청인 세대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집착성 강박증상이 보이는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보다 피신청인 세대의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한 실정이며,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한 낮에 2~3보만 걸거나 의자 등이 끌리면 비정상적이고 악의적인 소리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낮에 돌아가는 청소기 소리에도 보복용 우퍼를 이용하는 등 심각한 난동을 부림
- 신청인은 피신청인 세대의 모든 공간에 발생하는 소음만을 주시

- 하고 방, 거실, 베란다, 주방 등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대해 보복용 우퍼를 이용하여 아이 방으로 집중적으로 난사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비인격적 성향의 집착성 행동을 해 그 방을 사용하는 아이의 경우는 다른 가족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막대함
- 피신청인의 작은 소음에도 벽을 치고, 막대기로 천장을 치고, 스피커(보복소음용 우퍼로 의심)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복하여 다른 주변 세대들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만한 소음이 많았음
 - 2019.2.21. 오후3시부터 신청인 세대의 보복성 소음은 일체 중단됨. 본인이 재정신청 접수 후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소음과 장비를 제거 및 중단한 것으로 보임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당사자 주거공간은 일반주거지역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2차선 도로가 있으나 교통소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정온한 환경임

나. 현지조사 결과

- 당사자 주거 공간은 건축된 지 2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문 여닫는 소리, 성인의 보통 걸음 소리, 식탁의자 끄는 소리 등 불가피한 생활소음 등이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특성을 보였음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

- 1) 층간소음 측정자료, 당사자 제출자료,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자 함
- 2) 층간소음 측정결과

- 가) 측정일시 : 2018.04.06.(금). 17:21 ~ 2018.04.08.(일) 12:48
- 나) 측정기관 : 000보건환경연구원
- 다) 측정위치 : 1212호 거실
- 라) 측정구분 :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마) 주요 소음원은 바닥충격음, 낙하인 것으로 분석됨

4. 판단

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2018.04.06.(금). 17:21~2018.04.08.(일) 12:48 까지 층간소음 측정결과 최고소음도가 50dB(A) 이상으로 측정된 횟수는 총 26회(주간 16회, 야간 10회)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층간소음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된 지 23년 경과된 아파트로 문 여닫는 소리, 성인의 보통 걸음 소리, 식탁의자 끄는 소리 등 불가피한 생활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